

은혜로 QT

5월 3일. 월요일.

묵상말씀. 시편 91편 14절 - 16절.

14.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5.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묵상제목.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리는 삶의 견고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보호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심을 통해 분명히 이뤄집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건지고 영화롭게 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약속이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이뤄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엄밀하고 엄중하게 요청되고, 요구되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헌신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집중,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의미에서의 헌신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의심, 내 두려움, 내 미움과 분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거스르고 걸러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결단과 끊임없는 노력, 영적인 깨어 있음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와 같은 복을 누릴지 메말라가는 우물에서 건져내는 채 한 바가지도 채우지 못하는 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줄 기도.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